

# 정읍시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지속가능 성장 밑그림

## 신규 산단 조성·순환도로망 구축...1도심·4지역중심·2특화핵 설정

정읍시가 2040년까지의 도시발전 방향을 담은 '정읍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40년 정읍도시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정읍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전략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60인의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의 식조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품요롭고 활력 있는 고을, 정읍'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문화관광 휴양도시 ▲첨단산업 경제도시 ▲미래 농생명도시 ▲시민 중심의 맞춤형 활력도시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도시 공간구조는 '1도심, 4지역중심, 2특화핵'으로 설정됐다.

신태인(농업거점), 입암(산업거점), 고부(역사문화관광거점), 칠보(관광휴양거점)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정읍첨단(첨단산업거점)과 내장산(사계절 관광거점)을 특화핵으로 조성해

지역별 강점을 살린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생활권 계획은 기존 1개 대생활권, 5개 중생활권, 23개 소생활권 체계를 유지하면서 생활권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해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 2.09km<sup>2</sup>를 확보해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미래형 신규 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스마트화 등 첨단산업 경제도시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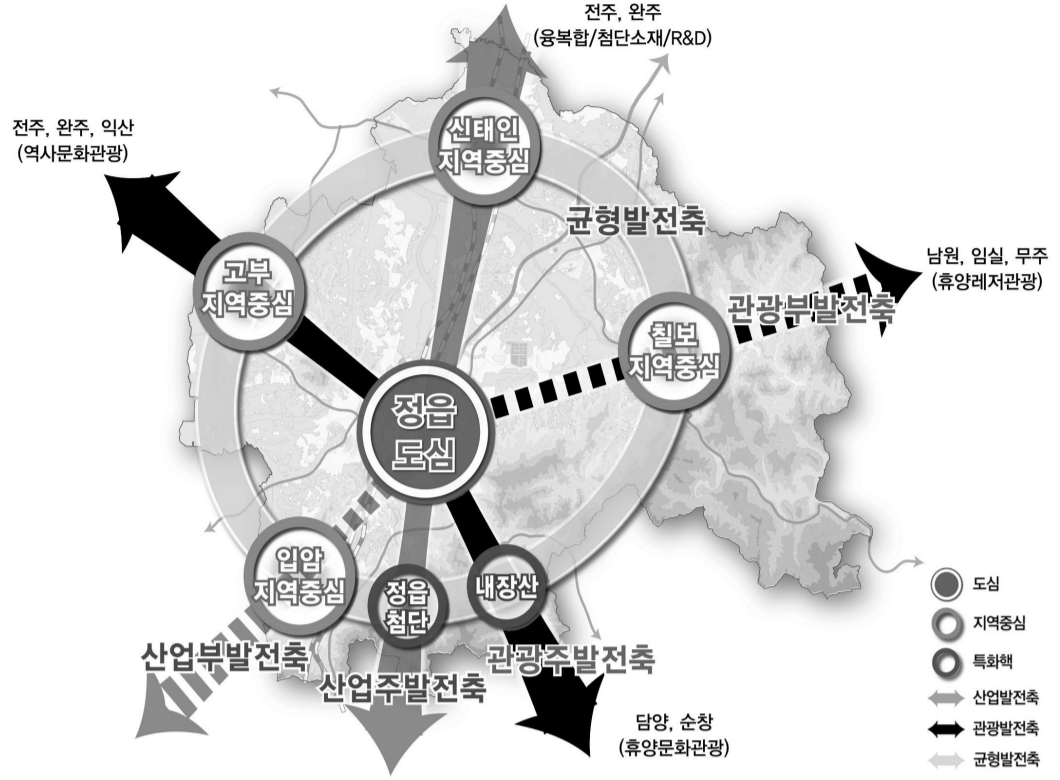
또 도심 내 교통량 분산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환도로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1차, 2차, 3차 순환도로망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도심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고 물류·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수성동과 구룡동을 연결하는 시가지 도로망을 구축해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며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2040년 정읍시의 미래 비전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도시기본계획을 완료

##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순환도로망 개요



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세심히 살펴 시민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빈집 새 주인 찾아요"

### 정읍시, 희망하우스 사업 추진 수리비 최대 2500만원 지원

정읍시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도시지역의 빈집을 수리해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로,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농촌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집 소유자는 최대 25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일러 교체와 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빈집은 의무 임대기간(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되며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3월 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된 빈집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해 노후 정도, 접근성, 활용성 등을 평가한 뒤 임대인을 선정하고 임대인은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입주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귀농·귀촌인과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



### 외국인등록절차·안전교육 등

고창군이 1월부터 2월 25일까지 한 달간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순회 사전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572명 고용농가의 권역별 읍면사무소에서 총 7차례 진행됐다. <사진> 교육에선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등록절차 ▲근로계약 및 산재보험 ▲재해예방 안전교육 등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내용이 다뤄졌다.

고창군은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인 26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지역농가에서 일손

을 돕는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2024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농가에서 근로자를 전주까지 데려가지 않아도, 고창에서 편리하게 외국인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지원했다.

김용진 고창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현장에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유치와 고용농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며 "외국인등록 대행 서비스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정책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점 추가 모집

### 3월7일까지 접수

남원시가 오는 3월7일까지 관내 '2025년 디지털관광주민증 가맹점'을 추가 모집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지난 2023년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남원시에 주소를 없는 관광객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발급자 수는 13만4802명으로 남원시 정주민구 7만5604명 대비 173%에 해당한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은 안내 체험·숙박 7개소, 쇼핑·식음 23개소 총 30개의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가맹점 모집 대상은 관내에서 식음료점,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가맹점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 홍보와 더불어 남원시 자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행안부 주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를 받아 데이터 기반 행정의 모범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에 대한 3개 영역 10개 지표를 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고창군은 공공와이파이 입지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표준분석 모델 정립 공모사업, 데이터 분석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데이터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은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60세 춘향이 뽐습니다"

### 글로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남원시, 4월4일까지 참가 접수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글로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가 4월30일 춘향의 본고장 남원시에서 개최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제95회 춘향제(4월30일~5월6일)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 행사로 실시된다.

참가 기준은 55세 이상(1970년 4월30일 이전 출생)의 여성이다. 외국인·다문화 여성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참가 기준 확대는 글로벌과 시니어를 결합한 남원만의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대변하고 있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역사회 공헌 및 청춘 점수(수상경력, 봉사활동, 사회참여 등)를 통해 내면의 미를 심사한다. 에세이 점수로는 삶의 감동적 이야기를 심사할 방침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월4일까지다. 사흘 후인 7일 에선 심사를 거쳐 같은 달 30일 본선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